

구조적 인종 차별 관련 자료



신앙고백서

1967년 신앙고백, 9.44

하나님께서서는 땅에 있는 여러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하나의 보편적 가족이 되게 하셨다. 그의 화목의 사랑으로써 형제들 간의 장벽들을 극복하며, 사실 또는 상상의 민족적 또는 인종적 차이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깨뜨려 버리신다. 교회는 만민을 이끌어 생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붙들어 주도록 하려고 부름을 받았다: 고용, 주거, 교육, 여가, 결혼, 가정, 교회, 정치적 권리 행사에서 그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민족 차별의 폐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상해를 받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한다. 동료 인간을 미묘하게라도 배척하거나, 지배하거나, 그들의 후견인이 되어 있는 회중이나 개인이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집단은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며 그들이 표명하는 신앙에 대하여 모욕을 가져다 준다.

벨하 신앙고백, 10.5-6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는다:

-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의 사역을 교회 맡기셨다;
- 교회는 이 땅의 소금과 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는 화평케 하는 존재이기에 복되다 일컬어지며, 교회는 그 말씀과 행동으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증거한다;
-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불화와 미움, 갈등과 반목의 권세도 정복하셨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교회로 하여금 사회와 세상을 위해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들을 열어줄 수 있는 새로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 기독교라 자칭하는 지역에서 인종에 기초한 강제적 분리가 소외와 미움과 반목을 신장시키고 고착시키는 곳에서는 이 메세지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유익한 사역이 방해를 받는다;
- 복음에 호소함으로 그러한 강제적 분리를 합법화하려 하고, 순종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편견과 두려움과 이기심과 불신때문에 화목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사전에 부인하는 가르침은 어느 것이라도 이념이며 거짓 교리로 여겨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 아래 인종과 피부색의 차이에 따른 강제 분리를 찬성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목의 사역과 경험을 사전에 방해하고 약화시키는 교리는 어떤 것이라도 거부한다.

간추린 신앙 고백서, 11.3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는 그를 아바, 곧 아버지라 불렀다.

하나님은 주권적 사랑으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며,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게 지으시어,
남자와 여자, 각 인종과 백성을,
한 공동체로 살게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를 피하여 숨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며
거짓을 참이라고 받아들이고, 이웃과 자연을 착취하며,
우리에게 맡겨 돌보게 하신 지구를 죽음에 직면케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그래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공의와 자비를 베푸신다.

영원하신 사랑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택하시어,
이 땅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종 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셨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르 언약의 상속자로 삼는다.

마치 젓먹이를 물리치지 않는 어머니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맞으러 달려가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예배모범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셔서 정의를 위해 일하게 하신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 힘을 행사하기; 개인 및 공공 영역에서 정직하게 처신하기;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과 자유를 추구하기; 이 땅의 낯선 자를 환영하기, 법의 정의와 공정성을 추구하기; 빈부격차를 극복하기; 억압과 폭력의 제도를 대항하여 증언하기; 그리고 개인, 집단 및 대중에게 가해진 잘못들을 시정하기 등이다. 하나님은 또한 교회를 보내 다음과 같은 곳에서 평화를 추구하게 하신다: 보편적 교회 안에서, 교단 내에서, 개체 교회 수준에서; 나라들과 종교 혹은 민족 그룹들이 서로를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세상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 학교, 직장, 이웃 및 가정에서 등이다. 중재와 정의를 위한 이러한 활동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 위에 세워지며,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중보 혹은 변호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주일 예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선포하고, 받고, 또한 제정한다. 말씀의 선포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며, 다른 사람들과 이러한 선물들을 나누고자 하는 감동을 받는다. 세례와 주님의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며, 지금도 우리들 서로간의 사이를 갈라 놓는 적개심이라는 분열의 벽들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우리는 불의한 제도에 참여한 것을 고백하고, 폭력과 불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드러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지원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일에 헌신한다. (*규례서*, W-5.0304).

공동 예배서(WJK, 2018)

폭력 사건 후의 기도	593
폭력 사건 후의 예배	595
정의와 평화를 위한 예배	599
성경 봉독	602
찬송, 시편, 영가	603
예배 시작 말씀 (원주민의 날)	604
참회의 기도	605
탄식의 기도	610
신앙 고백	612
중보 기도	614
성만찬 기도	624
축도	625
각종 기도	626

경이로운 임재	633
감사의 축제	638
갈등 혹은 위기 시의 모임	639
이웃을 위한 기도	640

Glory to God: The Presbyterian Hymnal (WJK, 2013)

Come Now, O Prince of Peace	103
Jesu, Jesu, Fill Us with Your Love	203
Go in Grace and Make Disciples	296
We Are One in the Spirit	300
Let Us Build a House (All Are Welcome)	301
In the Midst of New Dimensions	315
In Christ There Is No East or West (MCKEE)	317
In Christ There Is No East or West (ST. PETER)	318
We Are One in Christ Jesus	322
Sound a Mystic Bamboo Song	323
The Right Hand of God	332
Lift Every Voice and Sing	339
This Is My Song	340
In an Age of Twisted Values	345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s	346
Freedom Is Coming	359
O Christ, the Great Foundation	361
O for a World	372
We Shall Overcome	379
Dream On, Dream On	383
O Look and Wonder	397
Now There Is No Male or Female	493
Come! Live in the Light! (We Are Called)	749
Goodness Is Stronger than Evil	750
Dona Nobis Pacem	752
Help Us Accept Each Other	754
O God of Every Nation	756
O God, We Bear the Imprint	759
Called as Partners in Christ's Service	761
Somos el Cuerpo de Cristo	768
I'm Gonna Eat at the Welcome Table	770
We Are Marching in the Light of God (Siyahamba)	853